

4월 가요계, 봄바람 타고 걸그룹 돌아온다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4월 가요계도 봄바람이 불어온다. 신인부터 정상까지 다양한 걸그룹이 4월 가요계 출사표를 던진다.

4월 걸그룹 컴백의 시작은 EXID가 연다. 2월 새 싱글 '내일해'로 컴백한 EXID는 90년대 뉴 잭 스윙 컨셉으로 완벽 변신했다. 핑키한 리듬과 레트로한 멜로디 선율을 EXID만의 감성으로 표현했고 음악 뿐만 아니라 패션, 안무 역시 90년대를 재해석하며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다. 반면, 지난 2016년 12월 갑상선

EXID · 오마이걸 반하나 · 아이들 등 신인부터 정상까지 가요계 출사표 던져

곡으로 재미만 가사가 인상적이다. 오마이걸은 3일 오전 1시 후소핑을 통해 첫 무대를 선보이는 과격적인 프로모션을 선택하기도 했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트와이스도 4월 9일 컴백하며 정점을 찍을 예정이다. 트와이스 미니 5집의 동명의 타이틀곡 '왓 이즈 러브?(What is Love?)'은 JYP 수장 박진영이 작사, 작곡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데뷔 이후 '우아하게', '치어 업', '티티', '낙낙', '시그널', '라이키', '하트세이커' 등 7연타 흥행에 성공하며 명실상부 한국 대표 걸그룹으로 성장한 트와이스가 박진영과 함께 8연타석 히트행진중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로 7주년을 맞은 에이핑크도 4월 중 팬들에게 신곡을 선물한다. 지난해 6월 미니앨범 'Pink Up' 이후 10개월 만에 신곡과 팬미팅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5월 본격적인 일본 진출에 앞서 지난달 28일 일본

에서 기자회견 및 프리미엄 쇼케이스를 성공리에 마친 여자친구도 4월 말 컴백을 가시화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러블리즈와 다이아 역시 4월 컴백을 일렷다.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여기 그룹명을 '아이들'로 확정 짓고 데뷔를 앞두고 있다. 포미닛과 씨엘씨에 이어 3년만에 큐브에서 탄생하는 아이들은 엠넷 '프로듀스 101' 출신 전소연이 포함되며 화제를 모았다. 신인 걸그룹도 4월 데뷔를 앞두고 있다. KBS '더 유닛'을 통해 탄생한 유닛(UNIT)도 4월말 데뷔를 목표로 준비에 한창이다.

가요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2월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대형 스포츠행사가 치러졌고 6월부터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기에 3~5월에 가요계, 컴백과 데뷔가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걸그룹은 곡의 이미지와 컨셉트의 봄과 잘 어울리는 가운데 4월에 많은 팀이 몰리고 있다. 이미 걸그룹을 대표하



는 팀은 물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셉트로 가요계 도전장을 내밀고 있 팀 등 다양한 팀들이 각기 다른 콘 다"고 설명했다.

“눈물 · 아쉬움 · 후회” 무도 멤버들의 복잡한 종영심경



'무한도전'이 막을 내리면서 시청자들도 아쉬워지만 '무한도전'의 멤버였던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

하, 조세호, 양세형의 마음은 더욱 아쉬워 듯하다.

MBC '무한도전'이 지난달 31일 방송을 끝으로 방송 13년 만에 종영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을 지켰던 예능인 데다 '국민 예능'이라 불렸을 만큼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무한도전'이 떠난 빈자리가 크다.

멤버들은 마지막 방송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SNS를 통해 '무한도전' 종영의 아쉬움을 표현했다.

정준하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무한도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마세요.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하, 양세형, 조세호, 정형돈, 노홍철, 김광희, 진진, 김태호, 하와 수 저희는 이만. 설악산 올산 바위"라는 글과 박명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기와에 적은 글이 담겨있는데 정준하는 "무한도전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그동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무한도전 잊지 마세요"라는 글을 적었다. 그리고 박명수는 이 기와를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멤버들의 아쉬움은 마지막 방송에서도 이어졌다. 멤버들이 종영 인사를 전했는데 조세호와 하하, 정준하는 끝내 눈물을 보였고 박명수의 후회가 담긴 소감도 있었다.

박명수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무한도전'이 가장 컸다. 끝날 때 되니까 '왜 그때 열심히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며 후회했다. 정준하는 "시청자분들께 가장 감사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 온 제작진, 멤버들에게 고맙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하하는 "감사한 마음도 엄청 크지만, 동시에 죄송한 마음도 든다. 모자란 저희를 잘 키워주셨다"라며 "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나가겠다"며 결국 눈물을 보였다. 조세호는 "나라는 사람을 멤버로 받아줘서 위해서라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면 '무한도전' 스테이션, '무도'가 다시 왔구나 하는 내용으로 다시 오겠다"고 인사했다.

유재석은 "크고 작은 인생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있다. 상당히 어렵고 죄송하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한편으론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무한도전'이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면 '무한도전' 스테이션, '무도'가 다시 왔구나 하는 내용으로 다시 오겠다"고 인사했다.

의미 있는 일들을 해왔고 때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13년 동안 항상 함께했던 '무한도전' 멤버들, 멤버들의 눈물과 소감을 통해 '무한도전'과 작별하는 이들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한 지 짐작할 수 있었다.

기특한 '지금까지' · '곤지암' 한국영화 흑역사 청산



액션, 블록버스터가 점령하다시피 했던 박스오피스에 새로운 활기가 불고 있다. 관객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장르 영화들이 잇달아 호성적을 내는 것. 멜로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와 공포영화 '곤지암'이 선전하고 있다.

소지섭 손예진 주연의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감독 이장훈)은 90년대 멜로 부흥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감성 작품이다. 과거 로맨스물에서 맹활약했던 소지섭과 손예진의 만남으로 일찌감치 주목 받았던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관객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는 중이다. 특히 '클래식' '내 머리 속의 지우개' 등 멜로 영화사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멜로 여제 손예진이 오랜만에 돌아와 더 의미 있다.

모두가 사랑하는, 호불호 없는 배우 소지섭, 손예진 커플의 감성 케미스트리와 풍성한 캐리커, 아름다운 풍경과 추억을 소환하는 볼거리, 거기에 유머감각을 결집한 세련된 연출로 따뜻한 감동과 여운을 선사하며 전 세대 관객에게 지지를 얻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개봉한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개봉 15일 만에 200

만 관객을 돌파했다. 역대 멜로 영화 최고 흥행작인 '건축학개론' (누적 411만 645명)보다 빠른 속도다. 개봉 3주차임에도 불구하고 임소문을 바탕으로 탄탄한 빛임을 발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객이 모이는 주말 박스오피스까지 정상을 차지하며 세대 통합까지 이뤄냈다.

3월 31일 토요일 하루 동안 42만 3,394명의 관객을 동원한 '곤지암'은 역대 공포 영화 사상 최고 일일 스코어를 경신하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컨저링' '갯 이웃' 등 영화에 성공을 내줘야 했던 한국 공포영화의 흑역사를 지운 셈. 공포물은 여름에 통한다는 통념을 깬 것 역시 기특하지 않을 수 없다.

마마무, '인기가요' 3주 연속 1위

걸그룹 마마무가 '인기가요'에서 3주 연속 1위에 올랐다.

1일 방송된 SBS 음악방송 '인기가요'에서는 4월 1주째 1위 후보로 마마무, 모모랜드, 워너원이 호명되는 모습이 전파를 뒀다.

이날 마마무는 모모랜드, 워너원의 맹렬한 집진 끝에 1위를 차지했다. 아쉽게도 마마무의 무대는 없었지만 워너원은 '악속해요(I.P.U.)'와 '부메랑'으로 압도

적 컴백 무대를 꾸며 팬들의 뜨거운 감성을 이끌어냈다.

이날 '인기가요'는 다양한 컴백 무대가 가득한 눈길을 끌었다. 동방신기는 '평행선'과 '운명'으로 자신들의 여유롭고 세련된 분위기를 뽐냈으며, 몬스타엑스는 '비쳤으니까'와 'Jealousy'로 물론 남성미를 뽐냈다. 사무엘 또한 'ONE'으로 절도 있는 퍼포먼스를 펼쳐 여심을 사로잡았다.

오늘의 순세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음력 2월 17일)



▶**경고**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때로는 '인내'하는 것이 지선적인 성격을 고치는 한 방법일 것이다. 바, 오, 킷 성씨 서로 분수를 지키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라. 1, 2, 3월생 검은색은 피하고 파란색으로 행운을 잡으라.



▶**경계** 나를 밟고 오르려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경쟁 사회인만큼 속이고 속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세상을 더 큰 눈으로 바라보라. 2, 7, 8, 11월생 다들 내 마음 같은 줄 알다 믿는 자에게 뒤투수를 맞는 격이다. 대담성이 요구되는 때다.



▶**경계**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라. 자존심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지 말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 상대 말을 무시하기 전에 수렴하면 공든 탑은 안 무너진다. 5, 8, 9월생 부부 화합의 장을 열어나갈 때 행복이 도래한다.



▶**경계** 내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감히 따스한 봄날 햇빛을 받아. 생동감 있는 활력을 찾으라. 바, 오, 킷 성씨 건강 주의. 신병이 우려되니 먼 길 여행은 피하라.



▶**경계** 확실하지도 않은데 추측해 판단하지 마라. 서로 신뢰하지 못 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 애정이 갈등 겪는 동안 가정엔 금전으로 인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 혼자서는 힘드니 주위 사람과 의논하여 해결책을 찾아볼 것.



▶**경계** 가정 문제가 끊이지 연결되니 헤어내려 해도 벽에 부딪히기만 할 뿐이다. 홀로 해결하기보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다. 상대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베풀라.



▶**경계**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결점은 무엇인지 먼저 반성해야 발전할 수 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있었던 만큼 하는 일 점차 손조롭게 이뤄질 수. 바, 오, 킷 성씨 더욱 지혜를 모아 내일을 설계하라. 분발하는 만큼 이득이 따르겠다.



▶**경계** 때때로 내가 내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격이다. 사랑과 낭만을 좋아하는 당신이지만, 분위기를 맞춰주는 사람이 없으니 하소연할 곳도 없구나. 바, 오, 킷 성씨 곁과 돌아보며, 반성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라.



▶**경계** 지금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처음부터 갈 수 없는 길이라면 아예 출발도 하지 마라. 바, 오, 킷 성씨는 작은 일인데, 큰일이든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안이 편안해야 밖도 편안하다.



▶**경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 속 이치를 알아야 할 때다. 5, 9, 11월생 짜증을 내며 상대만 탓하지 말고, 협력에 협력을 이워 사업과 가정에서도 단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10, 11, 12월생 파란색은 피할 것.



▶**경계** 용기를 잃지 말고 인내하라. 자기주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손실이 없겠다. 2, 9, 11, 12월생 구하면 얻고, 찾으면 만난다. 자부심을 가지라. 포기는 자신을 후회시키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표현해 사랑을 구하라.



▶**경계** 자신을 이해하고 감싸주기를 바라기 전에 '꼭 그런가?'를 생각하라. 믿고 따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자세를 보이라. 바, 오, 킷 성씨 결과 속이 다르다면 언젠가는 진실성이 드러나는 법.